파주시, '시청사 증축' 청사진 만든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장기 행정수요·기능 재편 따른 공간수요 산정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시청사 증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청사 증축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청사 증축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대신,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증축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청사 증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행정 기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앞으로 약 12개월 동안 시청사의 현황과 공간 활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 인구 및 행정 수요 예측 ▲행정 기능 재편에 따른 공간 수요 산정 ▲증축 대상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행정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 증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시청사 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광주시, 주거복지대상 '대통령 표창'

최우수기관에 선정… 위기가구 발굴·지원 호평

노인·장애인 맞춤 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 주목

경기 광주시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복지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주거복지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 위기가구 발굴과 정보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상향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취약가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 노후(Aging In Place)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추진한 점도 주목받았다.

민관 협력 주거 상담사를 운영해 1인 가구 주거환경 진단하고, 노화·장애 대응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 점도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협약식에 참석한 이만근 시장(왼쪽 세 번째)이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대학 연계 교양교육모델 구축

안산大등 지역내 5개교 협약

콘텐츠 마련·개발성과 공유

경기 안산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양과목 선택을 통해 안산 지역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6일 안산대학교 라키비움관에서 지역내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 연계형 교양 교육 모델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함께 온라인 교양과목 '안산탐구'를 운영 중인 안산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만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 김도균 서울예술대학교 교무처장, 손승우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원영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학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대학은 '안산탐구' 교과목을 기반으로 한 교양 교과목 '안산하세요'(가칭) 개발을 위해 공동 콘텐츠를 마련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내 대학 재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시흥시, 거북섬 스케이트장 20일 개장

웨이브파크 앞 광장에 1500㎡ 아이스링크 조성

얼음썰매장·눈썰매장도… 1시간 이용료 1000원

경기 시흥시가 연말을 맞아 거북섬 스케이트장을 오는 20일 개장하고, 올 한 해를 음악으로 마무리하는 문화공연 '2025 시흥 사운드 오브 윈터'도 함께 개최한다.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광장(정왕동 271번지)에는 20일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이 운영된다.

스케이트장은 아이스링크장 1500㎡(50m×30m), 얼음썰매장 400㎡(20m×20m), 눈썰매장 360㎡(50m×7.2m) 규모로 조성돼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케이트장은 평일 하루 6회(오전 10시~오후 6시30분), 주말과 공휴일 7회(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된다. 매회 1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회차 사이 30분은 얼음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시흥시민은 시간당 1000(입장료·장비대여료 포함)원만 내면 스케이트화와 헬멧을 빌려 1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일반인도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오이도역에서 거북섬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스케이트장에는 물품보관소와 매점, 의무실도 갖춰진다.

이와 함께 시는 거북섬 스케이트장 개장을 기념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2025 시흥 사운드 오브 윈터'를 개최한다.

21일부터 27일까지 웨이브파크 로비 공연무대에서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美 CES서 '인천 AI시티 비전' 알린다

내년 1월6~9일

인천경제청, 테마관 운영키로

생활·산업등 혁신기술 선보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3년 연속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인천의 AI 시티 비전을 알린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목적지 인천-스마트시티에서 AI 시티로(Destination Incheon-From Smart City to AI City:The Next Evolution of Urban Life)'를 테마로 '인천시-IFEZ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LVCC) 노스홀 AI 구역에 전시관을 조성한다.

CES 2026 인천시-IFEZ관은 ▲이동, 안전, 에너지, 건강 등 시민 생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삶터(AI SMART LIVING ZONE) ▲제조, 물류, 식품, 의약 등 산업 현장을 혁신하는 일터(AI INNOVATION HUB ZONE) ▲콘텐츠·경험을 창조하는 놀이터(AI CREATIVE CITY ZONE)로 구성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 시티로 진화하는 인천의 혁신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성과대회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우수기관'

경기 성남시는 '2025년 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수정구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29곳 보건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업 운영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매년 학기 초에 수정구보건소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질병관리청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사업 도입 당시인 2011년 초등학교 2곳으로 시작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올해까지 105곳으로 늘었다.

현재 어린이집 54곳, 유치원 8곳, 초등학교 43곳의 원생과 학생이 유병 조사와 질환 예방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규제혁신으로 기업 혁신·성장 견인

안양시, 현장애로 해소 팔걷어

자금 융자·판로개척등 지원도

경기 안양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모이는 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거나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개선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지역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유망한 지역내 기업 8곳을 선정했으며, 2026년에도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간 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지역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내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국한된 내용의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정부 개정해 규제의 등록 영향분석 규제의 심사 등 규제혁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주소정보 초교 수업교재 제작

인천 연수구, 희망학교에 배포

인천 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교 수업용 주소정보 교육교재를 제작해 지역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교육교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의 의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재에는 ▲건물번호판 디자인하기 ▲우리동네 지도 그려보기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형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는 지역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에 교재를 배포하고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기탁식에 참석한 김덕현 군수(왼쪽 세 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낙농축산계, 연천군에 우유 600상자 기탁

서울우유낙농축산계는 최근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멸균우유 600상자를 기탁했다고 17일 연천군이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응화 서울우유낙농축산계장, 진형원 서울우유대의원연합회장 및 임원진들이 함께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응화 계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조합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울우유낙농축산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후원물품은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홀몸 노인 등 겨울철 영양간식으로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곳 지정

경기 오산시가 최근 지역 자동차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대상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2025년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에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르노코리아 원동점 ▲세마카센타 ▲쥼모터스 ▲오토오아시스 태양점 등 총 4곳이다. 시는 지난 11월 초 모범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고객 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관리 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향후 3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지도·점검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시 홍보와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동차관리사업은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오산시는 지역내 자동차관리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아천동 은행나무 당산제 성료

경기 구리시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내에 위치한 아천동 은행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아천동 은행나무 당산제'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천동 은행나무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은행나무에 한 해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1981년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조성 이후 중단됐다가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올해 당산제는 아천동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염원하는 뜻과 함께 구리 시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구리시 아천동 1200년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시민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지역 원주민과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제례 형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구리=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용인시, 27일 장애인 창작뮤지컬 무료 공연

경기 용인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창작 뮤지컬 '놀부가 기가 막혀'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가 후원하고, 극단 일점오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배움장애인야학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협업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대중에게 익숙한 고전 놀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다.

국악 반주와 뮤지컬 공연을 결합해 전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약 1시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배우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풍성한 국악 선율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화성경제인포럼 개최… 지역내 기업인 상호교류

경기 화성시가 지난 16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5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화성경제인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며, 지역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상호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내 기업인,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정 (주)아인아르스 대표이사의 강연 및 질의응답, 유공자 표창,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시장은 "올해 내수 둔화,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불확실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오신 기업인분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